

##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



9월 5일 KBS TV공개홀에서 열린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구방송총국의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 (이하 <GPS와 리어카>)가 대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KBS 콘텐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GPS와 리어카>는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의 리어카에 GPS를 부착해 노동 시간과 이동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폐지수집 노동의 실상을 시각화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폐지수집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노인 빈곤의 현실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방송대상'에서 지역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대구방송총국은 2019년에도 <기억, 마주서다>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와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1,000회 특집, 설 대기획 트로트 뮤지컬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9회 그리고 대전방송총국의 <대전역 빠진 트램>

연속 기획보도, 광주방송총국의 5·18특집 다큐 <3공수, 42년 만의 증언록>, 춘천방송총국의 한 아세안 온택트 뮤직페스티벌 <Round in Korea>가 작품상을 수상했다.

한편 한국방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의철 사장은 9월 2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의 날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통해 "최근 들어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방송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가장 친밀하고 신뢰받는 매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청정 미디어 영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송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며 고품질 콘텐츠를 통해 진정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감당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I·N·T·E·R·V·I·E·W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박진영 기자에게 한국방송대상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 Q 혹시 수상을 기대했는지 궁금하다.

정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전혀 기대하지 않아서 얼떨떨하다. 대구총국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선배들 덕분에 좋은 보도가 가능했다. 많은 분이 폐지수집 노동에 관심 가져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니 더더욱 감사하다. 어르신들 꾸준히 찾아뵙고, 문제가 개선되도록 후속 보도 이어가겠다.

#### Q <GPS와 리어카 : 폐지수집노동 실태보고서>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거리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볼 때마다 궁금했다. '저 일은 얼마나 힘이 들까', '왜 저 일을 해야만 할까' 가난 때문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많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김도훈 선배에게 폐지수집 노동 실태를 취재해보고 싶다고 했다. 단번에 킬 당했다. '노인'과 '빈곤'은 시청자가 멀리하는 소재인데, 두 개를 묶어냈다는 것이다. 꼭 제작해야 한다면, 모두가 관심 가질 장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리어카에 GPS를 달기로 한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왔다.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뉴스에 2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편성한 것도 그 일환이다. 의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청자가 흥미 가지는 뉴스를 제작하고 싶었다. 보도 이후,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이라 여겼다.

#### Q 취재 이후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조심스레 말하자면, 폐지수집 노동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아진 것 같다. 폐지수집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노동이지만 그동안 무관심 때문에 정부 차원의 연구조사가 전혀 없었다. 이번 보도를 통해 폐지 수집 노동자의 수와 노동 형태, 사회 기여도 등이 정확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빈곤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Q 후속 방송 계획은? 앞으로 취재하고 싶은 분야는?

연구 보고서가 곧 발간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후속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다음에는 '지역 청년'에 대해 취재해보고 싶다. 지금 안동에서 순환 근무 중인데 서울에 살고 싶지만 못 올라가는 청년, 서울에 가기 싫지만 올라가야만 하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을 마주했다. 폐지수집 노동으로 노인 빈곤을 이야기했듯 지역 청년이라는 소재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뤄보고 싶다.



박진영 기자  
KBS 대구방송총국 보도국

# 제3회 시청자주간...“공영미디어 KBS, 시청자와 함께”

KBS는 시청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 시청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2020년부터 9월 첫 주를 ‘시청자주간’으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 시청자주간을 맞아 KBS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특집 프로그램들을 방송했다.



## 제31기 시청자위원회 출범... 시청자위원회상·시민기자상 등 시상식 열려

9월 1일 본관 시청자광장에서는 김의철 사장을 비롯해 김덕재 부사장과 강희중 편성본부장, 손관수 보도본부장 등 임원진과 신입 시청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시청자주간 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제31기 시청자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시청자 제작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 우수 제보자에 대한 시민기자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

## 《KBS 시청자포럼》 개최... 공영방송의 디지털 아카이브 공개 문제 다뤄

시청자주간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본관 TS-4에서 《KBS 시청자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강재원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최효진 외대 정보기록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정희경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와 강신규 코바코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공영 방송 아카이브 공개의 공공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시청자와 소통하는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 편성... 특별음악회도 열려

KBS는 시청자주간 동안 TV와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시청자와 공영방송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방송된 <1020세대의 눈으로 본 KBS>에서는 지난 5월 선발된 제2기 1020 시청자위원회 K-PD들이 1020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본 KBS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통해 젊은 시청자들의 시각을 수렴할 수 있었다.

3라디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럽>은 이벤트를 통해 선정된 청취자들이 성우들과 함께 만든 오디오 클럽을 9월 3일과 4일 이틀간 소개했다. 또한 시청자들을 위한 특별음악회로 8월 31일에는 KBS 관현악단의 <한여름 밤의 크로스오버>가, 9월 1일에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국민을 위한 등대, 새로운 세상을 밝힙니다>가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이 밖에도 부산총국이 시청자와 함께한 특집 <세상다반사>를 8월 31일에 방송하는 등 KBS 각 지역국에서도 지역 시청자들을 위한 다양한 특집방송을 내 보냈다.

### 제31기 KBS 시청자위원회 출범

## “각계각층 시청자 대표해 목소리 전달”

제31기 KBS 시청자위원회(위원장 최경진)가 인권, 노동, 경제, 장애인 소외계층 등 12개 분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15명 위원들로 구성됐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3명, 40대가 5명, 50대가 4명, 60대가 2명, 70대가 1명으로 전체 15명 위원 중 30~40대가 절반 이상인 8명을 차지했다. 여성 위

원은 8명, 남성위원은 7명이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위촉됐으며, 앞으로 2년간 각계각층의 시청자들을 대표해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 KBS 제31기 시청자위원 명단 (위촉기간 : 2022.9.1 ~ 2024.8.31)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성명(담당부문)	현직(추천단체)
최경진 위원장(인권)	대구가톨릭대 미디어영상 광고홍보학부 교수 (언론인권센터)	박명희 위원(소비자)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소비자와 함께)	양이현경 위원(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상규 위원(청소년)	서울YMCA 시민사회 운동본부 본부장 (서울YMCA)	김수현 위원(변호사)	법무법인 온화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김소형 부위원장(언론)	성균관대 학부대학 초빙교수 (한국정치 커뮤니케이션학회)	김지미 위원(언론)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최세경 위원(언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한국방송학회)	김은균 위원(장애인 소외층)	극단 함께걷는사람들 대표 (한국장애인 문화관광진흥회)	윤성준 위원(노동)	노무법인 청록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승만 위원(경제)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한국광고주협회)	정정은 위원(문화)	문화연대 사무처장 (문화연대)	조남익 위원(과학기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홍승빈 위원(학부모)	학부모정보감시단 팀장 (학부모 정보감시단)	정진임 위원(인권)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 태풍 '힌남노' 재난방송 총력... 5일 아침부터 연속 재난 생방송 실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속 재난 생방송을 실시했다. KBS는 '힌남노'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5일 오전 6시부터 1TV의 모든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24시간 특보 체제를 가동해 쉼없는 연속 재난

방송을 진행했다. KBS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방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 <전국노래자랑> 새 진행자에 김신영



방송인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의 고(故) 송해 선생님을 잇는 후임 MC로 선정됐다. 새 MC로 발탁된 김신영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는 '셀럽파이브'와 '둘째 이모 김다비'로 활약했고, 최근에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데뷔 20년 차 만능 엔터테이너다. 김신영은 "〈전국노래자랑〉과 함께 자라온 제가 후임 진행자로 선정되어 가문의 영광이다"라며, "앞으로 전국 팔도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열심히 배우겠다.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신영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은 10월 16일 첫방송될 예정이다.

▶ 매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11**

## KBS, '영향력'·'신뢰도' 종합 1위 <시사저널> '202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분야 설문조사 결과

KBS가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실시한 '2022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언론매체 분야 설문조사에서 영향력·신뢰도 부문 종합(전문가+일반인 조사) 1위를 차지했다. 특히 KBS는 올해 처음 실시한 일반인 조사에서 영향력·신뢰도에 이어 열독률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영향력] KBS, 2016년 이후 6년 만에 1위 탈환

먼저 KBS는 전문가 대상 '영향력' 조사에서 39.0%의 지목률로 1위를 차지하고, 일반인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42.8%의 지목률을 기록해 종합(전문가+일반인 409명) 1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에 달성한 '영향력' 1위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탈환한 것으로 더욱 값진 성과였다. 이는 그동안 KBS 보도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상당 부분 줄어든 데다, 심층 취재를 강화하는 등 KBS가 새로운 시도를 해온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일보(종합 지목 수(이하 '종합') 351명/전문가 32.4%(3위), 일반인 37.8%(2위))-MBC(종합 294명/전문가 25.8%(5위), 일반인 33.0%(3위))-네이버(종합 244명/전문가 33.0%(2위), 일반인 15.8%(8위)) 등이 KBS의 뒤를 이었다.

### [신뢰도] KBS, 2년 연속 1위

KBS는 '신뢰도' 부문에서도 총 317명의 지목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 지목률 27.2%, 일반인 지목률 36.2%로 두 그룹 모두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MBC(종합 261명/전문가 21.6%(3위), 일반인 30.6%(2위))-JTBC(종합 235명/전문가 25.2%(2위), 일반인 21.8%(4위))-SBS(종합 183명/전문가 12.4%(7위), 일반인 24.2%(3위))-YTN(종합 156명/전문가 16.0%(4위), 일반인 15.2%(6위)) 등의 순이었다.

### [열독률] KBS, 일반인 조사 부문 1위

KBS는 영향력·신뢰도 종합 1위에 이어 올해 처음 실시한 일반인 조사에서는 열독률 부문 1위

(27.8%)를 차지하는 기록을 남겼다. 종합 지목 수에서는 218명으로 네이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열독률은 네이버(종합 287명/전문가 37.0%(1위), 일반인 20.4%(4위))가 1위를, 2위는 KBS(종합 218명/전문가 15.8%(4위), 일반인 27.8%(1위)), 이어 MBC(종합 185명/전문가 12.8%(8위), 일반인 24.2%(2위))-JTBC(종합 175명/전문가 18.0%(3위), 일반인 17.0%(6위))-다음카카오(종합 166명/전문가 20.2%(2위), 일반인 13.0%(8위)) 등의 순이었다.

(시사저널)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는 1989년부터 시작해 33년째 이어오고 있는 공신력 높은 조사이다. 그동안 행정관료·교수·언론인·법조인 등 10개 분야의 전문가 각 1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중을 조정해 10개 분야의 전문가 각 50명씩 총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반인 조사를 신설해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 한가위를 즐겁고 알찬 KBS 프로그램과 함께!

추석 연휴 동안 안방극장을 사로잡기 위해 KBS가 아심차게 준비한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 치열한 체력·두뇌 싸움 <스포츠 골든벨>



<스포츠 골든벨>은 농구, 골프, 수영, 야구, 격투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들이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치는 퀴즈 프로그램이다. 방송인 전현무와 서장훈이 MC를 맡았으며 허재, 박세리, 김병현, 김동현 등이 출연해 총 2라운드로 진행되는 퀴즈 관문을 통해 MVP 1인을 가리게 된다. 평소 운동만 잘한다고 생각했던 스포츠 스타들의 숨겨둔 예능감과 반전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가 시청자들의 흥미를 돋을 예정이다.

▶ 9월 9일(금) 저녁 7시 40분 / 9월 10일(토) 오후 4시 50분 **KBS2**

##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귀향>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귀향>은 경북 안동호 작은 모래섬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쇠제비갈매기의 생태를 감동적으로 그려내 호평받았던 자연 다큐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2018년 방송)>의 방송 이후 이야기다. 수몰로 고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쇠제비갈매기를 위해 시민들이 인공 모래섬을 조성하고 천적 회피 시설을 마련하는 등 쇠제비갈매기의 특별한 귀향을 돕는 지난 5년간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는데 쇠제비갈매기와 인간과의 아름다운 공존이 따뜻하게 그려진다.

▶ 9월 9일(금) 저녁 7시 10분 **KBS11**

## KBS 대기획 4부작 <한식 연대기>



<한식 연대기>는 근현대 한식 120년사(史)를 정치, 인물, 경제, 문화 등 4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푸드 인문 다큐멘터리다. 전 세계를 매혹한 K-FOOD, 우리 한식의 매력은 무엇인지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과 현장 자료 등을 통해 조명한다. 특히 프리젠티어로 나선 배우 주상욱과 김규리가 각 회차에 걸맞은 특색있는 시대별 드라마타이즈(Dramatize: 영상의 드라마화)를 선보이며 재미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9월 10일 방송되는 1부 <정치의 맛>에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으며 급변했던 정치사가 만든 우리 한식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9월 11일에는 평범한 가족의 3대를 대표하는 여인 3명의 삶을 통해 음식의 변천사를 되돌아보는 2부 <여인, 백년의 밥상>이 방송된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경제 상황에 따른 한식의 변화를 살펴본 3부 <한식 주식회사>와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식의 비결을 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4부 <K-FOOD EXPRESS>가 2주 연속으로 방송된다.

▶ 9월 10일(토), 11일(일) 밤 9시 40분 / 9월 15일(목), 22일(목) 밤 10시 **KBS11**

## 본격 음이탈 조장 노래 대결 <라운드 테이블>

6명의 참가자들이 노래 대결을 펼칠 장소 '라운드 테이블룸'에 입장해 하나의 노래를 원곡의 키 그대로 나눠 부르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다. 강호동이 MC를 맡았으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파트 다음 소절을 이어서 부를 사람을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11일 방송될 1회에는 정이랑(배우), 송해나(모델), 아이키(안무가), 이은지(개그우먼), 강아랑(기상캐스터), 김수현(역도 국가대표)이, 이튿날 2회에서는 허경환(개그맨), 정혁(모델), 홍성흔(전 야구선수), 강재준(개그맨), 김기두(배우), 김계란(인플루언서) 등이 출연한다. 참가자들이 음이탈 또는 음정과 박자 실수를 하게 되면 경고 1회를 받고 총 5회의 경고를 받으면 탈락하는데, 6라운드까지 진행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 9월 11일(일) 밤 9시 20분 / 9월 12일(월) 저녁 8시 30분 **KBS2**

## KBS 라디오, 추석 특집 <5일간의 음악 여행> 방송

KBS 쿨FM과 2라디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취자들을 위한 <5일간의 음악 여행> 특집 방송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방송한다. 쿨FM(수도권 89.1MHz)에서는 <조우종의 FM대행진>부터 <헤이즈의 불륨을 높여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석 연휴 풍경을 전하는 코너들을 방송하며, 2라디오(수도권 106.1MHz)는 <김태훈의 프리웨이>, <김해영과 함께> 등 대표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취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한다. 이와 함께 귀성·귀경길의 실시간 교통정보 및 날씨 정보 편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첨단 기술과 피땀 어린 노력의 합작품 <컬러로 보는 우리의 얼굴>



유남경  
제작기술센터 후반제작부

KBS가 8월 15일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한 <컬러로 보는 우리의 얼굴>은 우리 현대사 관련 흑백 필름 자료와 영상 등을 고화질 컬러로 복원해 보여줌으로써 잊혀가는 우리 역사를 되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작기술센터

후반제작부 유남경 사수가 복원과정에 어떤 첨단 기술이 동원되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작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전해왔다.

KBS는 현대사영상프로젝트팀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들을 발굴해오고 있고, 수원아카이브에도 방대한 필름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SD급 파일로 변환되어 현재 K-DAS(KBS 아카이브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제작은 필름 영상들을 고화질로 스캔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최신 필름 스캔 장비를 이용해 HD급 이상으로 다시 디지털라이징(아날로그 상태의 필름영상을 디지털 영상파일로 변환)한 필름들은 스캔 전 1차적으로 물리적, 화학적으로 세척하고 스캔 과정 혹은 보관상 문제로 생기는 손상 부분을 후작업을 통해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보정하고 화면의 떨림을 잡는 등의 후 보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본격적인 컬러 복원은 KBS 미디어기술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딥러닝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 진행했다. 이전에도 일부 영상의 컬러 복원은 몇 번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사용한 새로운 워크플로우로 발전된 퀄리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장소와 인물들이 나오는 영상이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샷의 대표 이미지 한 장을 완벽히 채색한 뒤 AI 엔진에 레퍼런스로 줘서 한 샷의 채색을 완성하는 Reference 방식(레퍼런스 이미지의 컬러를 유사한 대상에 전이시키는 색상화 기술)을 이용했다. 덕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 현장에서 옥색의 옷을 입고 연설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 이 외에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신랑 신부의 예복, 귀환선의 배 종류, 하와이의 조선인 포로 등도 박물관과 역사자료, 문서 등을 통해 고증하는 작업을 거쳤다.

1차 컬러 복원은 AI가 했지만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흑백 영상이 컬러로 바뀌긴 했지만, 인물의 움직임이 많거나 카메라 무빙이 많은 경우 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로서는 AI의 기술적 한계로 사람이 직접 보정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결국 한 프레임마다 윤곽선을 따라 그림을 그리듯 번진 색이나 칠해지지 않은 곳을 다시 칠해

가는 로토스코핑 작업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디테일한 보정이 끝난 영상 전체를 타임라인에 맞춰 각기 다른 콘트라스트(명암의 대비)와 톤을 맞추고 디테일을 보정하는 색보정 작업을 진행했다. 흑백 위에 색을 얹어서 진행하다 보니 피부 등이 검붉어지는 느낌이 강해 피부톤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고, 인물이나 주요 피사체에 시선이 가도록 색을 조절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후반 보정 작업은 방송 전날까지 계속됐는데 하고 또 해도 수정할 게 새롭게 보이는 마법을 경험하며 작업이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늘 그렇듯 모든 것이 완벽했는가에 대해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작업은 투입된 인원과 시간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입사해 필름 영상을 만지고, 가치있는 역사적 자료를 컬러로 복원해 성공적으로 방송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었다. 덧붙여 필름의 음질 개선에 도움을 주신 TV기술국 SMR팀과 많은 필름들을 일일이 찾아주신 콘텐츠아카이브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알기 쉬운 디지털 이슈

#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조직 DAO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올해 3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케이옥션을 통해 국보 '금동삼존불감'을 '헤리티지 DAO'에 팔았지만 지분 51%를 기부받아 전시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월에는 국내 블록체인 인

사들의 주도로 '금동삼존불감'을 낙찰받기 위해 '국보 DAO'를 설립해 24억을 모았으나, 최소 목표액인 50억 원에 미달하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출현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등의 용어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최근에는 여기에 DAO가 가세했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의미한다는 DAO에 대해 살펴본다.

### DAO란?

DAO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약자로 일반적인 기업이나 조직과 달리 대표의 통제 없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성원 전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을 뜻한다.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2013년에 개념을 설명하고 2016년에는 블록체인의 정신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출범시켰는데,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벤처캐피털 펀드이기도 하다. 특징인이 개입할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하에서 운영되는 일종의 회사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1.5억 달러나 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출범시켰던 'The DAO'는 해킹을 당해 블록체인의 기본 기능 자체를 수정하는 하드포크(hardfork)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이더리움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DAO의 비즈니스 규칙은 주주들의 컴퓨터상에 배포되는 검증 가능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구현된다. DAO는 블록체인이라는 분산화된 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한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코드화된 프로토콜(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의결권을 행사해 해당 커뮤니티의 의사를 결정하면 이는 자동으로 집행되고 기록된다. 규칙은 커뮤니티의 표결에 따른 의사결정 외에는 수정될 수 없고 스마트 계약은 오픈소스를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은 이 회사의 주식을 구매함으로써 주주가 되거나 회사에 서비스를 공급해 그 주식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주식은 그 소유주가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의 이익을 공유하는 자격을 나타낸다. DAO는 프로젝트를 계산 가능한 상호작용 작업으로 분할하고, 작업들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DAO의 종류에는 소셜 DAO, 소셜 미디어 DAO, 엔터테인먼트 DAO, 벤처 DAO 등이 있다.

### DAO의 전망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데이터 분석 업체인 메사리(Messari)는 2020년이 탈중앙화금융 DeFi(Decentralized Finance: 은행, 카드사, 증권

사 없이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용하는 것)의 해였고, 2021년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의 해였다면 2022년은 DAO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DeFi가 새로운 금융, NFT는 예술의 미래라면 DAO는 인적 조직과 커뮤니티의 미래라고도 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국은행 같은 중앙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이 탄생하고 이에 대한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이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발전하고 있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DAO는 합법성이나 보안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구조화된 비즈니스를 대체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NFT 등과 연결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새로운 블록체인 개념을 넘어선 조직,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구조라는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DAO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국보 '금동삼존불감'

# <리슨 업>, 마라맛 서바이벌 뒤에 담긴 진정성

KBS에 저스디스(JUSTHIS)가 나온다? 아마도 힙합을 좀 들었던 분들이라면 그 조합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여길 만하다. 프로듀서들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리슨 업> 이야기다. 이 프로그램에 프로듀서로 참여한 팔로알토는 첫 번째 미션 주제로 제시된 '썸머 송'에 저스디스를 가수로 섭외해 '써머타임'이라는 곡을 선보였다. 스스로도 'KBS 첫 출연'이라는 점에 의미 부여를 한 이 무대에서 저스디스는 특유의 강렬한 랩을 들려주면서도 KBS라는 무대에 맞는 '수위 조절(?)'을 한 모습이었다. 일단 '써머타임'이라는 곡 자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스디스의 센 힙합과는 결이 달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스디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한 무대가 팔로알토의 프로듀싱으로 보여지게 됐다.

본래 저스디스에서 상당 부분 순화된 무대가 선보여졌지만, KBS라는 공영 방송에서 <리슨 업>은 아마도 가장 센 서바이벌 예능이 아닐까 싶다. 저마다 음악에 대한 다른 소신과 철학을 가진 프로듀서들의 거침없이 내놓는 이야기들은 첫 회부터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 정도였다. 특히 라이언전과 김승수의 팽팽한 대결 구도는 <리슨 업>에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다.



'미디의 신'으로 불리는 김승수가 음악 자체 방침을 짚는 철학과, 무수한 히트곡을 낸 라이언전의 음악은 물론이고 무대 세팅부터 콘셉트까지 프로듀싱 전반에 방침을 짚는 철학의 부딪침이 그렇다. 이들의 대결 구도는 그 자체로 오디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현 가요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듀싱의 다양한 경향

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지금껏 무수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나왔지만 <리슨 업>이 가져온 차별성은 프로듀서에 방침을 찍어 전 세계적인 위상을 갖게 된 K팝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곡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안무와 디자인과 콘셉트가 더해지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래 자체만큼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실제 음원이 나왔을 때 그 관심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방송에 나온 음원들이 차트에 곧바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리슨 업>은 프로듀서들이 만든 음원의 차트 점령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바이벌 오디션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실제 차트가 보여주는 성적이 서바이벌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걸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점점 실제 시장 반응을 반영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익숙한 곡들을 커버하는 방식의 오디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작곡을 매주 보여주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저조한 시청률이 아쉽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언전, 팔로알토, 정키, 픽보이, 김승수, 파테코, 도코, 라스, 빅나티, 이대휘 등 개성 강한 프로듀서 10팀이 같은 미션 주제에도 색깔이 다른 음원과 무대들을 선보이는 건 이 오디션만이 가진 중요한 매력이다. 또 프로듀서들이 만들어낸 창작곡을 과연 누가 부르는가도 이 오디션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그 라인업을 보면 신용재나에 일리, 백아연처럼 이미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최근 주목 받고 있는 EXN, 시온이나 비제이, 경서, 스키니 브라운, 키드 와인, Thama 같은 아티스트들도 있다.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새로운 곡과 새로운 아티스트들까지 한 자리에 소개하고 그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프로듀서들의 독한 서바이벌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리슨 업>이라는 오디션이 가진 착한 면면이 아닐까 싶다. 그 좋은 의도 덕분에 마라맛으로 연출된 대결 구도 역시 공감될 정도이니 말이다.



정덕현  
문화평론가



노은지 기상캐스터의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 파란 가을 하늘

계절의 흐름이 참 신기합니다. 9월로 접어들자 한낮의 더위도 물러나고 아침, 저녁엔 제법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날씨 예보에서 '큰 일교차'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텐데요. 아침엔 선선해 가을 분위기가 나다가도 낮엔 여전히 30℃ 가까이 오르는 늦더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낮의 계절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맘때, 환절기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가을 분위기를 더하는 건 서늘해진 공기뿐만이 아닙니다. 어느새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수

컷 귀뚜라미가 암컷 귀뚜라미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귀뚜라미는 24℃ 안팎의 온도에서 짝짓기를 가장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점점 선선해지는 9월의 시작과 함께 귀뚜라미 소리가 높아집니다. 귀뚜라미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가 딱 이맘때이기도 하죠.

하늘만 봐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늘빛부터 달라집니다. 더 높고 더 파란 하늘이 드러나 SNS엔 #가을하늘 #하늘이란 해시태그가 붙은 사진이 자주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애국가에도 "가을 하늘 공활한 데 높고 구름 없이"라는 가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유독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란 이유는 뭘까요?

가을엔 습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낮아 공기 중의 물방울이 적으면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의 산란이 잘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의 많은 물방울이 태양 빛을 흡수해 산란을 방해하는데요. 습도가 높은 여름이 지나고 습도가 낮은 가을이 되면 빛이 충분히 산란돼 하늘이 더욱 파랗게 보입니다. 여름에도 맑은 날이 많지만 가을 하늘이 더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습도 때문입니다.

가을만큼이나 건조한 계절이 봄입니다. 하지만 봄 하늘이 가을 같지 않은 이유는, 봄엔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많으면 태양 빛을 한꺼번에 산란시켜 푸른색은 옅어지고, 흰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봄엔 하늘이 오히려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습도가 낮고 오염물질도 적은 가을엔 가시거리가 20~30km 정도로 깨끗합니다. 가을엔 날씨 예보에서 '가시거리가 평상시보다 탁 트여 있다'는 말을 종종 들으실 텐데요. 평상시 가시거리는 10km 정도로 가을엔 평상시보다 두세 배 정도 시야가 깨끗합니다. 가시거리 20~25km 정도면 서울 남산에서 개성 송악산과 인천 앞바다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오늘의 가시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탁 트인 가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 KBS 대전방송총국 ‘지역밀착형 시민저널리즘’ 가능성 보여줘

한해 전부터 KBS 대전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 방송 프로그램과 뉴스 보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필자의 눈길을 끌었던 뉴욕타임스(NYT)의 작년 여름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Why an East Harlem Street is 31 degrees hotter than Central Park West: If you want to map inequality in New York, you can just count trees” (이스트 할렘 거리가 센트럴파크 웨스트보다 섭씨 9도 가량 더운 이유: 뉴욕의 불평등 지도를 보고 싶다면 나무의 수를 세어 보라).

뉴욕타임스는 1851년 창간 이래 탁월한 취재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적인 언론이다. 하지만 필자는 위 기사에서 뉴욕타임스의 ‘지역성’에 주목했다. 기사를 작성한 John Leland의 말을 인용하자면, 뉴욕에는 한여름 열섬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표 온도가 동서로 섭씨 9도 이상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그 열섬현상의 불균등이 인종 구성, 소득, 대기의 질,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목과 녹지대 분포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빈부의 격차 정도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부유층이 생활하는 곳일수록 수목과 녹지 면적이 넓은 반면, 빈곤층이 거주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수목과 녹지가 부족하여 여름이면 열섬현상의 뜨거운 기류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

다. 기사는 이런 현상이 직접적으로 빈곤층의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녹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뉴욕시와 사회단체의 노력과 성과,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전 세계 지식인이 주시하는 뉴욕타임스에서 전 지구적 문제나 정치·경제적인 이슈가 아닌 뉴욕이라는 도시의 열섬현상과 수목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뉴욕타임스도 세계적인 언론인 동시에 뉴욕이라는 도시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를 통해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첫째, 지역의 언론은 현장 중심적 강점을 발휘하여 지역민의 현안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야 한다. 둘째, 지역의 언론은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의 매개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언론은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접한 로컬 프로그램이 있다. KBS 대전의 <5시N대세남>이다. 대세남은 대전, 세종, 충남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는 기존 라디오 방송에서 TV까지 영역을 확장해 <시사N대세남>을 방송 중이다. 이는 라디오의 긴밀함과 TV의 생생함을 연결하겠다는 취지이며, 대중들의 호응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의 구체적인 삶과

맞닿아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의 다양한 패널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시사N대세남> 제작진은 대전·충남 민연련의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민연련은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지역 언론이 주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현안을 심층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지역 언론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구현된 사례라고 본다.

KBS 대전방송총국은 주민들의 제보와 현장 취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느낀다. 또한, 과거 콘텐츠의 소비자로서만 역할을 했던 지역민이 직접 콘텐츠의 제작 참여자로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시민저널리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처럼 지역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더욱 사랑받는 지역 방송으로 발전하는 KBS 대전방송총국이 되길 소망한다.



이광섭  
대전방송총국 시청자위원장 / 한남대학교 총장

계열사 소식

KBS N

## 웃음과 지식을 모두 전하는 두뇌 계발 버라이어티 KBS Joy <내일은 천재>

9월 15일 첫방송되는 <내일은 천재>는 언론 고시계의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이력에 예능감까지 갖춘 ‘브레인 가이드’ 전현무와 천재를 꿈꾸는 예체능부 4인방의 두뇌 계발 버라이어티다.

공부보다 잘하는 게 많았고,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했던 ‘예비 천재’ 예체능부 4인방이 매회 각 분야의 일타강사가 준비한 신박한 클래스를 함께하며 천재력을 키워나간다.

예체능부 4인방으로는 연기와 예능을 오가며 ‘신스틸러’로 활약 중인 배우 김광규, 한국 야구사에서 ‘역대 최고 우타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김태균,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이자 ‘예능 루키’로 우뚝 선 곽윤기, 아이돌계의 ‘입담 천재’ 골든차일드 이상준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한 분야에 집중해 업적을 세웠으나 공부에는 순수한 분들이 예체능부 4인방”이라며 “자신의 두뇌 계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만큼, ‘브레인 가이드’ 전현무 그리고 일타강사들과 어떤 케미를 형성하며 성장해 나갈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 첫 방송 9월 15일 / 매주 목요일 밤 10시 KBS Joy



KBS 아트비전

## ‘2022 경상남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행사 대행



KBS 아트비전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경상남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개·폐회식, 시상식, 부대(체험)행사 등 종합행사 운영을 대행했다.

이번 대회는 2006년 첫 개최 이후 16년 만에 첨단기계산업의 중심인 경남에서 개최된 것으로, CNC/선반, 산업용로봇 등 53개 직종(약 1,700여 명)의 17개 시·도 대표 선수들이 참가했다. 또한 참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숙련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다.



9월 24일 첫 방송 되는 새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이하 삼남매)는 가족을 위해 양보만 해야 했던 장녀와 연예계 톱스타로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장남이 만나 펼쳐지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다.

삼남매 중 장녀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의사 출신 의학 관련 콘텐츠 기획자 김태주 역은 <보이스>, <착하지 않은 여자들>을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여온 이하나가, 연예계 톱스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온 장남 이상준 역은 <나를 사랑한 스파이>, <함부로 애틋하게> 등을 통해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여온 임주환이 맡았다.

태주와 상준네 두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될 <삼남매>에서는 명품 조연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시청 포인트다. 필라테스 강사이자 밝고 명령한 성격으로 삼남매 중 둘째 딸인 김소림 역은 배우 김소은이, 낙천적이고 다정다감한

성격에 가족애가 강한 정형외과 전문의 막내아들 김건우 역은 배우 이유진이 맡았다. 또한 삼남매의 아빠 김행복과 엄마 유정숙 역에는 송승환과 이경진이, 이상준의 엄마 장세란 역에는 장미희가 출연한다. 이 밖에도 이태성, 왕빛나, 김승수, 김용림 등 믿고 보는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캐릭터를 맛깔나게 보여줄 예정이다.

극본은 <착하지 않은 여자들>, <흑기사>의 김인영 작가가, 연출은 <별난 며느리>, <맨홀-이상한 나라의 필> 등에서 섬세한 연출력을 선보여온 박만영 PD가 맡았다. 박 PD는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핏줄로 이어진 가족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정의의 가족을 만나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첫 방송 9월 24일(토) / 매주 토~일요일 저녁 8시 **KBS**